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사업자 확정

'99년도 제1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용자사업자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유재환)는 지난 4월 28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한전, 전기연구소, LG산전 등 산·학·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용자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과제명 지능형 MCC Packet)를 비롯 총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업체의 기술개발과제는 중전기기분야의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능형 MCC Packet 구축기술, 차세대 다기능 UPS, 전압검출용 지지애자기술 등 첨단전력기술 중심으로 뽑혔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제2차 중전기

기 기술개발기금용자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9월말까지 용자사업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용자 조건은 한 업체당 총 3억원까지 지원되며, 연 5%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아래 표 참조).

한국전기공사협회

통계청, '전기공사업 경영분석' 정식 승인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가 매년 발간해 오던 '전기공사업 경영분석' 보고서가 통계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82년도부터 매년 작성해오던 '전기공사업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계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기공사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공사비 적정화를 통한

양질시공에 적극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기관의 정책수립과 주요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입찰 업무에 공식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크게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계는 앞으로 조달청 등 주요 발주처들로부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을 전기공사원가구성(기타경비율)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이번에 '전기공사업 경영분석' 통계기관으로 정식 인정받아 앞으로 전기공사업계의 위상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통계청이 승인한 경영분석자료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 한국은행, 산업은행,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기관이다.

LG전선(주)

臺灣에 초고압케이블 공급

LG전선(대표 權炆久)이 국내 전선업계로는 처음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다.

LG전선은 LG상사와 공동으로 대만 TPC社(Taiwan Power Company, 臺灣電力公司)에 200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11일 발표했다.

국제 입찰로 이루어진 이번 계약은 대만 전력공사가 타이페이 시내 架空線을 地中化하는데 필요한 161kV 地中 초고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용자대상사업자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업체명(대표자)	개발기간	지원금액
지능형 MCC Packet 구축기술 개발	(주)케이디파워(박기주 외1)	1999.5~1999.12	259
차세대 다기능 UPS 개발	(주)삼풍전원시스템(김창기)	1999.3~2000.2	150
전압검출용 지지애자 개발	동우전기공업(주)(김연수)	1999.4~2000.3	250
선로보호용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개발	대연전자(주)(이창근)	1999.5~2000.4	300
MICOM 제어형 Cableless CO ₂ 용접기 개발	조흥전기산업(주)(최백규)	1999.4~2000.11	237
72.5kV급 고속전철용 Gear Motor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동진모터공업(주)(이수자)	1999.5~2000.12	231
인공 지능형 상용/비상용 발전기 통합 중앙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보국전기공업(주)(곽종보)	1999.4~2001.3	243
총 계	7개 업체		1,670

압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3개 업체와 영국 BICC, 프랑스 알카텔 등 모두 11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은 20년 이상 일본 전선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보수적인 나라로 새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입찰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별을 두어왔는데 이번 LG전선의 진출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와 대만 현지 공관을 통해 대만전력공사측에 입찰 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LG측은 밝혔다.

이번 계약을 이끌어낸 LG전선 연구찬씨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타이페이 등 대만의 주요 대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소요될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전선(주)

몽골 이동전화사업 진출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SK텔레콤(대표 조정남)과 공동으로 몽골의 이동전화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합작법인명은 SkyTel사로 국제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참여방식은 총 자본금 5백만달러 중 몽골의 Univcom 등이 40%, 대한전선 35%, SK텔레콤이

25%를 각각 보유하게 되며, 울란바토르에서 지난 4월 15일 합작법인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립된 한·몽골 합작사인 SkyTel사는 몽골 전지역을 대상으로 Cellular Telephone 사업은 물론 Paging, Messaging, Mobile Fax, Mobile Data Service 등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주설비 및 보조장비는 SK텔레콤이 공급하며 설치 및 운용에 따른 기술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시작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나설 이 같은 사업은 앞으로 에르데넛, 다르항 등 지방도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몽골은 인구가 240만명인데 비해 지난해 말 현재 이동전화가입자수는 3,300명(보급률 0.14%)에 불과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또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사업환경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전선이 외국의 이동전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산전(주)

전자식 과전류 보호계전기, CE 인증 취득

LG산전(대표 :孫基洛)은 기중차 단기의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중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전자식 과전류 보호계전기를 개발하고, 일

본의 공인 기관인 TOKIN EMC ENGINEERING Co., Ltd의 Test를 통과 CE 인증을 취득하였다.

전자식 과전류 보호계전기는 기중차 단기에 장착되어 주회로에 사용되는 전류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 전류를 차단, 주변회로 및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LG산전이 2년간 3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전자식 과전류 보호계전기는 차단기의 성능이 대용량화되고 사고 특성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과부하로부터의 보호, 사고 유형 표시, 자체 진단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번 제품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타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타 전원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 전자파에 의한 제품 오작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을 디지털화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LG산전은 전자식 과전류 보호계전기의 CE 인증 마크 획득으로 그 동안 중국, 남미, 동남아에 편중됐던 기중 차단기의 수출 시장을 유럽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E마크 :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제정된 안전 규격으로서 안전, 건강, 환경에 관련된 제품의 경우 일정한 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CE 마크를 부착토록 하며, 이를 획득한 제품에 한하여 EU 지역 내에 출하, 유통시킬 수 있는 인증 마크를 의미한다. ■